

2026  
중3-1  
천재(노)

## 2026 중3-1 국어 천재(노) | 1(1) 문학의 아름다움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직전 보강 유형

작품에 사용된 표현법, 소재의 의미, 적절한 감상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제시된 지문을 통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무는 몸이 아팠다  
ⓐ 눈보라에 상처를 입은 곳이나  
ⓑ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들이  
오래전부터 근지러웠다  
땅속 깊은 곳을 오르내리며  
겨우내 몸을 덥히던 물이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하거나  
ⓒ 살을 에는 바람과 Ⓛ 외로움을 견디며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그를 못 견디게 들볶았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의 현데 자리가 아플 때마다  
그는 하나씩 ⓘ 이파리를 피웠다

(나) 밤하늘을 그어 버리는  
노란 손톱자국  
놀란 거인이 쿵쿵거리며 달려 나온다

## 1. (가)를 통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 ① 몸이 아픈 나무의 상황
- ② 상처로 인한 아픔의 크기
- ③ 봄에 나타나는 나무의 모습
- ④ 나무가 아픔을 느끼게 된 원인
- ⑤ 시련과 상처 속에서도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

## 2. (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나무를 의인화하고 있다.
- ② 나무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 ③ 작가는 계절마다 다른 다양한 모습의 나무를 관찰하고 있다.
- ④ 겨울 산에서 추위를 견디는 나무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느꼈다.
- ⑤ 작가는 시련 속에서도 이파리를 피우는 것에서 심미적 체험을 했다.

## 3. (가)의 ⓘ~ ⓘ 중에서 상징적 의미가 다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4. (나)를 읽고 감상을 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철민: 비장함과 승고함, 공포가 느껴져.
- ② 보람: 시각적, 청각적 심상이 잘 나타나 있어.
- ③ 재석: 번개 치는 모습을 노란 손톱자국에 비유했어.
- ④ 명수: 일상생활에서 얻은 심미적 체험을 재치 있게 비유했어.
- ⑤ 민희: 천둥소리를 거인이 쿵쿵거리며 달려 나온다고 표현했어.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옛날 중국의 곽휘원이란 사람이 떨어져 살고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아내의 답 시는 이러했다.

벽사창에 기대어 당신의 글월을 받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흰 종이뿐이옵니다.  
아마도 당신께서 이 몸을 그리워하심이  
차라리 말 아니 하려는 뜻임을 전하고자 하신 듯  
하여이다.

이 답 시를 받고 어리둥절해진 곽휘원이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니, 아내에게 쓴 의례적인 문안 편지는 책상 위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닌가. 아마도 그 옆에 있던 흰 종이를 편지인 줄 알고 잘못 넣어 보낸 것인 듯했다. 백지로 된 편지를 전해 받은 아내는 처음엔 무슨 영문인가 싶었지만,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 말로 다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으로 그 여백을 읽어 내었다. 남편의 실수가 오히려 아내에게 깊고 그윽한 기쁨을 안겨 준 것이다. 이렇게 실수는 때로 삶을 신선한 충격과 행복한 오해로 이끌곤 한다.

(나) 실수라면 나 역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언젠가 비구니들이 사는 암자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다. 다음 날 아침 부스스해진 머리를 정돈하고 하는데, 빗이 마땅히 눈에 띄지 않았다. 원래 여행할 때 빗이나 화장품을 찬찬히 챙겨 가지고 다니는 성격이 아닌 데다 그날은 아예 가방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마침 노스님 한 분이 나오시기에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여쭈었다.

“스님, 빗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스님은 갑자기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셨다. 그제야 파르라니 깎은 스님의 머리가 유난히 빛을 내며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거기가 비구니들만 사는 곳이라는 사실을 깜박 잊고 엉뚱한 주문을 한 것 이었다. 본의 아니게 노스님을 놀린 것처럼 되어 버려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나에게, 스님은 웃으시면서 저쪽 구석에 가방이 하나 있을 텐데 그 속에 빗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셨다.

나는 그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자꾸만 웃음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다. 절에서 빗을 찾은 나의

엉뚱함도 우물가에서 승능 찾는 격이려니와, 빗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토록 당황하고 어리둥절해 하던 노스님의 표정이 자꾸 생각나서였다.

(다) 결국 실수는 삶과 정신의 여백에 해당한다. 그 여백마저 없다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숨을 돌리며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어떻게 훔쓸려 가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어쩌면 사람을 키우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실수의 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실수가 용납되는 땅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사소한 실수조차 짜증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가 십상이다. 남의 실수를 웃으면서 눈감아 주거나 그 실수가 나오는 내면의 풍경을 헤아려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워져 간다.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 가지 일화를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했다.
- ②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 ③ 작품 밖의 서술자가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묘사했다.
- ④ 부정적인 인식의 대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 ⑤ 비유와 묘사, 속담을 사용하여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했다.

6. (가) 속 시의 역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내가 부여한 의미를 알려주는 역할
- ② 아내의 편지에 대한 남편의 답장 역할
- ③ 남편의 실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
- ④ 아내에게 그윽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역할
- ⑤ 아내를 향한 남편의 그리움을 알려주는 역할

신유형

시적 상황을 파악하는 문제, 적절한 속담이나 관용 표현을 묻는 문제, 시와 수필의 특징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학의 갈래에 대한 학습, 관용 표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밤하늘을 그어 버리는

노란 손톱자국

놀란 거인이 쿵쿵거리며 달려 나온다

- 「벼락」

(나) 나무는 몸이 아팠다

눈보라에 상처를 입은 곳이나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들이

오래전부터 근지러웠다

땅속 깊은 곳을 오르내리며

겨우내 몸을 덥히던 물이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하거나

살을 에는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며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그를 못 견디게 들볶았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의 현데 자리가 아플 때마다

그는 하나씩 이파리를 피웠다

- 「봄나무」

7. (가)에 나타난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원관념을 숨기고 있다.
- ② 음성상징어를 사용해 청각적인 효과를 주었다.
- ③ 공감각적인 심상을 통해 감각의 전이가 일어났다.
- ④ 의인화된 표현을 통해 대상을 비유적으로 나타냈다.
- ⑤ 시각적 심상을 통해 대상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했다.

8.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봄에서 겨울로의 계절의 변화가 나타났다.
- ② 인간사의 모습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나타냈다.
- ③ 시련을 견디며 열매를 맺는 나무의 모습을 통해 숭고함을 느낄 수 있다.
- ④ 작품 속 화자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전달했다.
- ⑤ 시적 대상의 모습을 보고 느낀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창작됐다.

9. (나)를 추천하기에 가장 적절한 상황인 사람은?

- ①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못 본 용만
- ② 좋아하는 친구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성만
- ③ 매일 아침 지각을 해 청소하는 혼만
- ④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꿈을 쫓는 덕만
- ⑤ 체육 수업 시간에 무릎을 다쳐 축구대회를 못 나가는 수만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답 시를 받고 어리둥절해진 꽉휘원이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니, 아내에게 쓴 의례적인 문안 편지는 책상 위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닌가. 아마도 그 옆에 있던 흰 종이를 편지인 줄 알고 잘못 넣어 보낸 것인 듯했다. 백지로 된 편지를 전해 받은 아내는 처음엔 무슨 영문인가 싶었지만,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 말로 다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으로 그 여백을 읽어 내었다. 남편의 실수가 오히려 아내에게 깊고 그윽한 기쁨을 안겨 준 것이다. 이렇게 실수는 때로 삶을 신선한 충격과 행복한 오해로 이끌곤 한다.

(나) 실수라면 나 역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언젠가 비구니들이 사는 암자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다. 다음 날 아침 부스스해진 머리를 정돈하려고 하는데, ⑦빗이 마땅히 눈에 띄지 않았다. 원래 여행 할 때 ⑧빗이나 화장품을 찬찬히 챙겨 가지고 다니는 성격이 아닌 데다 그날은 아예 가방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마침 노스님 한 분이 나오시기에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여쭈었다.

“스님, ⑨빗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스님은 갑자기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셨다. 그

제야 파르라니 깍은 스님의 머리가 유난히 ④빛을 내며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거기가 비구니들만 사는 곳이라는 사실을 깜박 잊고 엉뚱한 주문을 한 것이었다.

(다) 이처럼 악의가 섞이지 않은 실수는 봐줄 만한 구석이 있다. 그래서인지 내가 번번이 저지르는 실수는 나를 곤경에 빠뜨리거나 어떤 관계를 불화로 이끌기보다는 의외의 수확이나 즐거움을 가져다줄 때가 많았다. 겉으로는 비교적 차분하고 꼼꼼해 보이는 인상이어서 나에게 긴장을 하던 상대방도 이내 나의 모자란 구석을 발견하고는 긴장을 푸는 때가 많았다. 또 실수로 인해 웃음을 터뜨리다 보면 어색한 분위기가 가시고 초면에 쉽게 마음을 트게 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이런 효과 때문에 상습적으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어디에 정신을 집중하면 나머지 일에 대해서 거의 백지상태가 되는 버릇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다. 특히 풀리지 않는 글을 붙잡고 있거나 어떤 생각거리에 매달려 있는 동안 내가 생활에서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들은 내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다.

(라) 결국 실수는 삶과 정신의 여백에 해당한다. 그 여백마저 없다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숨을 돌리며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발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어떻게 훨쓸려 가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어쩌면 사람을 키우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실수의 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실수가 용납되는 땅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사소한 실수조차 짜증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가 십상이다. 남의 실수를 웃으면서 눈감아 주거나 그 실수가 나오는 내면의 풍경을 해아려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워져 간다. 나 역시 스스로는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살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조급하게 굴거나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한 때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

(마)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말을 들을 때면 그 말에 무안해져 눈물이 핑 돌기도 하지만, 내 속의 어처구니는 머리를 디밀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다. 정신과 마음은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뛰어가는 자신을 하루에도 몇 번씩 세워 두고 ‘우두커니’ 있는 시간, 그 ‘우두커니’ 속에 사는 ‘어처구니’를 많이 만들어 내면서 살아

야 한다고. 바로 그 실수가 곽휘원의 아내로 하여금 백지의 편지를 꽉 찬 그리움으로 읽어 내도록 했으며, 산사의 노스님으로 하여금 기억의 어둠 속에서 빛 하나를 건져 내도록 해 주었다고 말이다.

#### 10. (가)~(마)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험을 통해 얻은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글이다.
- ② 현실 세계에 있을 것 같은 일을 상상하여 쓴 글이다.
- ③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설득하려는 글이다.
- ④ 지은이의 생각과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쓴 글이다.
- ⑤ 어떤 사실이나 원리를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쓴 글이다.

#### 11. (가)와 (나)에 소개된 일화의 공통점은?

- ① 실수 때문에 생긴 오해와 대립을 담고 있다.
- ② 실수와 관련된 글쓴이의 직접 체험을 담고 있다.
- ③ 실수는 상처를 주므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④ 실수가 예상치 못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⑤ 실수가 지니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모두 다루고 있다.

#### 12. (나)의 ①~⑤를 바르게 읽은 것은?

- |             |               |
|-------------|---------------|
| ① ④빛이: [비시] | ② ④빛이나: [비치나] |
| ③ ④빛: [빛]   | ④ ④빛을: [비술]   |
| ⑤ ④빛을: [비즐] |               |

#### 13. 글쓴이가 생각하는, 자신의 실수가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없는 것은?

- ① 곤경에 빠뜨린다.
- ② 상대방이 긴장을 푼다.
- ③ 어색한 분위기가 사라진다.
- ④ 초면에 쉽게 마음을 트게 된다.
- ⑤ 의외의 수확이나 즐거움을 가져온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밤하늘을 그어 버리는  
노란 손톱자국

놀란 거인이 쿵쿵거리며 달려 나온다  
- 「벼락」

(나) ①나무는 몸이 아팠다  
눈보라에 상처를 입은 곳이나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들이  
오래전부터 근지러웠다  
땅속 깊은 곳을 오르내리며  
겨우내 몸을 덥히던 물이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하거나  
살을 에는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며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그를 못 견디게 들볶았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의 현데 자리가 아플 때마다  
그는 하나씩 이파리를 피웠다  
- 「봄나무」

14.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무가 처한 상황과 나무의 계절별 모습이 드러난다.
- ②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나무에게 한결같은 위안을 준다.
- ③ 겨울 동안 상처를 겪은 나무가 이파리를 피워 내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④ 이별로 인해 힘들어하는 연인의 모습을 나무의 성장 과정에 비유하고 있다.
- ⑤ 나무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나무들끼리의 대화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15. <보기>는 (가)에 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학생들끼리 모두 골라 둑은 것은?

<보기>

종경: 이 시는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재미를 주고 있어.

성민: 나는 이 시를 읽고 번개가 치는 모습을 손톱자국에 비유한 것이 참신하게 느껴졌어.

지연: 나는 후각적 심상과 미각적 심상의 사용도 이 시를 더 재치 있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해.

윤성: 나는 천둥이 울리는 소리를 '놀라서 달려 나오는 거인의 발소리'에 비유한 점이 재미있었어.

수진: 나는 벼락을 무서워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사회적 현상과 연관 지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표현한 부분이 기발했어.

- ① 종경, 지연
- ② 성민, 수진
- ③ 성민, 윤성, 수진
- ④ 종경, 성민, 윤성
- ⑤ 성민, 지연, 윤성

16. (나)를 읽고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어.
- ② 외로움을 느끼며 '그'를 기다리는 여인의 답답한 심정을 느낄 수 있어.
- ③ 상처 속에도 인내하며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어.
- ④ 병든 몸을 치료하며 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의 모습과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슬픔을 느낄 수 있어.
- ⑤ 인간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과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나무의 시선을 살펴볼 수 있어.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⑤

이 시의 주제는 ‘시련을 견디며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이다. 따라서 (가)를 통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⑤이다.

①, ②, ③, ④는 모두 시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2. 정답 ③

계절마다 다른 다양한 모습의 나무를 관찰하는 것이 아닌 겨울 동안 상처와 아픔을 겪은 나무가 봄이 되어 마침내 이파리를 피워 내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시이다.

① ‘나무는 봄이 아팠다’, ‘봄이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등을 통해 나무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②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를 통해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눈보라에 상처를 입은 곳이나’ 등의 시구를 통해 겨울 산에서 추위를 견디는 나무들의 모습에서 감동과 깨달음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겨울 동안 시련을 겪은 나무가 봄이 되어 이파리를 피워 내는 모습을 보고 느낀 감동과 깨달음을 서로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작가의 심미적 체험을 확인할 수 있다.

### 3. 정답 ⑤

①, ②, ③, ④는 모두 겨울 동안 나무가 견뎌 낸 시련을 상징하는 시어들이다. ⑤ ‘이파리’는 시련을 이겨 낸 후 맺은 결실을 의미하므로 상징적 의미가 다르다.

### 4. 정답 ①

(나)는 짧지만 기발하고 재치 있는 비유와 시각적, 청각적 심상의 결합으로 강렬한 인상과 즐거움을 주는 작품이다. 따라서 비장함, 숭고함, 공포감이 느껴지는 작품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노란 손톱자국’에서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고, ‘쿵쿵거리며’에서 청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③ 번개 치는 모습을 밤하늘을 그어 버리는 노란 손톱자국에 비유하고 있는 시이므로 적절하다.

④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번개’와 ‘천둥’이라는 소재에서 얻은 심미적 체험을 재치 있게 비유한 시이므로 적절하다.

⑤ 천둥소리를 ‘놀란 거인이 쿵쿵거리며 달려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5. 정답 ③

윗글은 삶과 정신에 여유를 주는 실수의 가치에 대한 수필로, ‘나’가 작품 속 서술자로 등장하여 주관적인 시선으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③은 적절하지 않다.

① 곽휘원의 실수와 ‘나’의 실수라는 두 가지 일화를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실수와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실수에 대한 깨달음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실수’라는 부정적인 인식의 대상을 삶과 정신에 여유를 주는 것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꿈보다 해동이 좋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 등의 비유와 속담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파르라니 깍은 스님의 머리가 유난히 빛을 내며~’ 등을 통해 묘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6. 정답 ②

(가)의 시는 남편의 편지에 대한 아내의 답장 역할을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⑤ 아내는 남편이 보낸 백지 편지에 대해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 말로 다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으로 생각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문안 편지 대신 흰 종이를 잘못 넣어 보낸 남편의 실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므로 적절하다.

④ ‘남편의 실수가 오히려 아내에게 깊고 그윽한 기쁨을 안겨 준 것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7. 정답 ③

‘노란 손톱자국’에서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고, ‘쿵쿵거리며’에서 청각적 심상이 사용되었을 뿐, 공감

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번개가 치는 모습과 천둥이 울리는 현상을 원관념을 밝히지 않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쿵쿵’의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청각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벼락의 모습을 시 전체에서 의인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노란 손톱자국’이라는 시각적 심상을 통해 번개가 치는 모습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므로 적절하다.

8. [정답] ⑤

(나)는 시련과 상처를 견디고 이파리를 피운 나무의 모습을 보며 얻은 감동과 깨달음을 전하는 작품이다. 의인화하여 표현한 나무의 모습에서 시에 담긴 시인의 심미적 체험을 추측해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① 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자연의 모습을 통해 인간사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열매가 아닌 이파리를 피워 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작품 속 화자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나무의 상황과 나무가 한 일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9. [정답] ④

(나)는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고 소중한 것을 얻어내는 과정을 보여주어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며 희망을 갖는 삶의 자세를 전달하는 시이므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꿈을 좇는 덕만이에게 추천하기에 적절하다.

- ①, ②, ③, ⑤는 현재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정답] ①

윗글은 수필로,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얻은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글이다.

- ② 소설에 대한 설명이다.  
③ 주장하는 글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시에 대한 설명이다.  
⑤ 설명하는 글에 대한 설명이다.

11. [정답] ④

(가) ‘곽휘원의 실수’와 (나) ‘글쓴이의 실수’의 두 일화 모두 실수가 예상 밖의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 ① 대립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는 글쓴이의 직접 체험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실수가 예상 밖의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므로 실수를 해도 된다.  
⑤ 실수가 지니는 긍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다.

12. [정답] 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연음되어 발음하므로 ‘빗이’는 [비시]로 발음한다.

- ②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연음되어 발음하므로 ‘빗이나’는 [비시나]로 발음한다.  
③ ‘빗’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빈]으로 발음한다.  
④, 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연음되어 발음하므로 ‘빛을’은 [비출]로 발음한다.

13. [정답] ①

(다)에서 ‘내가 번번이 저지르는 실수는 나를 곤경에 빠뜨리거나 어떤 관계를 불화로 이끌기보다는 의외의 수확이나 즐거움을 가져다줄 때가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다)의 ‘나에게 긴장을 하던 상대방도 이내 나의 모자란 구석을 발견하고는 긴장을 푸는 때가 많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④ (다)의 ‘실수로 인해 웃음을 터뜨리다 보면 어색한 분위기가 가시고 초면에 쉽게 마음을 트게 되기도 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다)의 ‘내가 번번이 저지르는 실수는 나를 곤경에 빠뜨리거나 어떤 관계를 불화로 이끌기보다는 의외의 수확이나 즐거움을 가져다줄 때가 많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14. 정답 ③

(나)는 겨울 동안 상처와 아픔을 겪은 나무가 봄이 되어 마침내 이파리를 피워 내는 과정을 형상화한 시이므로 적절하다.

- ① 나무의 계절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 ② ‘겨우내 몸을 덥히던 물이 / 이제는 갑갑하다고 /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하거나’에서 한결같은 위안을 주는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④ 이별로 인해 힘들어하는 연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⑤ 나무들끼리의 대화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5. 정답 ④

종경: ‘노란 손톱자국’에서 시각적 심상을, ‘쿵쿵거리며’에서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재미를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성민: 번개가 치는 모습을 밤하늘을 그어 버리는 노란 손톱자국에 비유하여 참신하게 표현하였으므로 적절하다.

윤성: 번개가 치고 나서 뒤이어 천둥이 울리는 현상을 천둥에 놀란 거인이 달려 나오는 것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지연: 후각적 심상과 미각적 심상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수진: (가)는 벼락의 모습과 특징을 재미있게 표현한 시로, 벼락에 대한 기억을 사회적 현상과 연관짓지 않고 있으며, 주관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종경, 성민, 윤성이 포함된 ④가 적절하고, ①, ②, ③, ⑤는 모두 적절하지 않다.

16. 정답 ③

(나)는 겨울 동안 상처와 아픔을 겪은 나무가 봄이 되어 마침내 이파리를 피워 내는 과정을 형상화한 시이다. 시련을 견디며 값진 것을 성취하는 나무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감상은 ③이다.

- ① 언어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시가 아니다.
- ② 외로움을 견디며 ‘그’를 기다리는 여인의 모습은 시에서 찾을 수 없다.
- ④ 가족들의 슬픔은 찾을 수 없다.
- ⑤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대

한 시가 아니다.

17. 정답 ④

㉠에 사용된 표현 기법은 의인법이다. 의인법이 사용되지 않은 예문은 ④이다.

①, ②, ③, ⑤은 모두 의인법이 사용된 예문이다.

18. 정답 ③

㉠은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는 법인데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관용 표현은 ‘싸전에 가서 밥 달라고 한다’이다.

- ①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외면하고 얇은꾀를 부려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얻으려는 태도를 일컬을 때 쓰는 속담이다.
- ②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그다음에는 단련되어 더욱더 강해진다는 의미이다.
- ④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이다.
- ⑤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키고 바르게 대해야 상대방도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한다는 의미이다.

19. 정답 ⑤

묘주: 곽휘원의 실수와 ‘나’의 실수라는 두 가지 일화를 통해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므로 적절하다.

수호: ‘실수’라는 부정적인 대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세환: ‘마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떼처럼~’, ‘꿈보다 해몽이 좋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유빈: 허구적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글쓴이가 직접 겪은 일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재혁: 편지 형식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묘주, 수호, 세환이 있는 ⑤가 가장 적절하고, ①, ②, ③, ④는 모두 적절하지 않다.

20. 정답 ④

(다)의 ‘겉으로는 비교적 차분하고 꼼꼼해 보이는